□■

주일설교 말씀나눔지

2022. 12. 25

「마가복음 서른여덟 번째 말씀」

빌려 쓰는 마음으로 살라

Live with a borrowing heart

마가복음 11장 1-10절

---

1.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
2.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
3.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
4.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
5.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
6.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
7.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
8.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,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
9.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
10.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

---

1. 당시 왕이 타는 동물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. 하나는 말이고, 하나는 나귀였습니다.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?

2. 그리고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‘나귀 새끼’를 타고 입장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절을 읽어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이유를 다시 이야기해봅시다.

3. 위 두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‘이전과 다른 방식’으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라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. 그 방식이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. 설교내용 중 ‘어느 농부 이야기’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.

4. 오늘 본문의 3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> 어느 누가 '왜 이러는 거요? ' 하고 물으면 '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. <u>쓰시고 나면,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</u>' 하고 말하여라.

밑줄 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생각해봅시다.

5.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‘빌려 쓰는 마음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.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유와 관계, 지식, 건강 등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나요?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성탄절에 주시는 마음을 나눠봅시다.